

총무원장스님 오찬 환영사

한·중 양국 불교계 교류활성화 및 우호증진을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중국불교협회 회장 스님이신 전인 큰스님을 비롯하여 대표단 스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한·중 양국은 참선수행이라는 대승불교 수행의 맥을 이어온 깊은 역사를 공유하고 있으며, 오랜 기간 동안 민중들의 삶과 함께 해온 전통종교로서 지금까지도 다양한 불교문화 유적과 무형 문화들을 보전 발전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근세 중국불교의 중흥조라 부를 수 있는 조박초 회장의 제안에 따라 한중일 3국은 불조의 제자로서 새롭게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되었습니다.

세계에서의 동북아 불교의 위상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고 앞으로도 발전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중 양국 불교계는 화합의 정신을 기조로 세계평화와 국제구호, 각종 분쟁해소에 앞장서서 인류의 미래에 새로운 지평을 선도할 책무를 갖고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동북아 불교의 황금유대가 서로의 색깔을 하나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각자의 독창성과 개성을 존중하면서 상호 교류하고 화합할 수 있다면 양국의 관계는 더욱 더 건강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 이야말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화세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한국불교를 대표해서 중국불교 대표단 스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남은 일정 동안 유익하면서 편안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불기2555년 11월 1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